

“상무관 예술공간 활용, 전당과 시너지”

상무관 5·18 기념전 참여
‘뒤셀도르프 평화작가’ 정영창

30년 전 디자인 회사 다니다
안주하는 삶 싫어 독일 유학
뒤셀도르프 미술아카데미 수학
다양한 인간 군상 화폭에 담아
지역 작가와 교류 늘릴 것

‘뒤셀도르프의 평화작가’

30여 년 동안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영창 작가(60)에겐 이런 근사한 타이틀이 따라 다닌다. 인류의 보편적 화두인 자유와 인권, 평화를 예술적으로 형상화 한 그의 작품이 독일 화단에 알려지게 되면서 부터다. 독일 신사실주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그는 개성적인 화법으로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비롯한 유럽 미술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의 ‘안네테 뮐러’(Galerie Anette Muller)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정 작가는 기자회견에서 “낯선 이곳에 오기 전엔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도 그렇듯이 정 작가가 뒤셀도르프에 정착하게 된 건 지난 80년대 국내의 암울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목포 출신인 그는 재대를 불과 3개월 앞둔 병장 딸인 무렵, 5·18 항쟁 소식을 접하게 됐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입대했던 그는 가족과 친구들 격정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어수선한 시기에 사회로 복귀한 그는 대학 졸업 후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정 작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 이유는 평생 화가로 살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어느 순간 생



정영창 작가가 뒤셀도르프의 작업실에서 작품 '얼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활인으로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독일 카셀로 유학을 떠났다”고 말했다. 지난 1983년 카셀 미술대학을 다니던 그는 지도교수의 도움을 얻어 뒤셀도르프 미술아카데미로 옮기게 된다. 당시 뒤셀도르프는 고 백남준 화백, 요셉 보이스 등 현대미술계의 거장들이 몸담고 있던 곳여서 미술학도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이었다.

가난한 화가에게 뒤셀도르프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물감이나 캔버스 등 재료 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그는 아시아 생활용품 몰류센터의 저렴한 창고에 작업실을 들여 온갖 폐기물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80년대 후반, 콜라주 작품에 몰두한 이유도 이런 척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 같은 열악한 여건도 불구하고 그가 줄곧 전작해온 주제는 인간의 존재의미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그는 다양한 인간군상의 얼굴에 주목한다.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가 담긴 얼굴에서 각 개인만의 독특한 삶을 화폭에 재현한다. 그의 작품세계는 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달콤한 이슬-1980 그후’와 2016년 광주시립미술관의 특별전 ‘자유와 평화의 화가 정영창’을 통해 지역사회에 소개돼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올해 5·18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였

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죽음의 공간’으로 불렸던 상무관에서 검은 싹을 소재로 그날의 아픔을 형상화 한 대작 ‘검은 하늘, 검은 기억’(가로 8m×세로 2.5m)을 내걸어 화제를 모았기 때문이다. 정 작가는 “5월의 유적지 가운데 하나인 상무관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되살려 낸다면 인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30여 년간 유럽화단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 작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다”고 말했다. /뒤셀도르프=글·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상무관 프로젝트’ 전 연장 광주시 11월 11일까지

광주시는 5·18 38주년 행사를 지난 5월 마련한 ‘상무관 프로젝트-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를 오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재전시한다고 밝혔다. ‘상무관 프로젝트’는 5·18 당시 광주시민의 주검을 수습했던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검은 싹로 오월영령을 표현한 정영창씨의 작품 ‘검은 기억, 검은 하늘’과 오월 어머니들의 모습이 담긴 허달용, 조경태 작가의 오월지킴이 초상화 10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를 주관한 5·18민중항쟁기념

행사위원회는 “많은 시민으로부터 상무관의 의미를 알리고 5·18민중항쟁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재전시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과 공동으로 올해 광주비엔날레 행사 기간에 전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관 프로젝트는 오는 9월 5·18 항쟁을 주제로 문화전당, 옛 국군통합병원 등에서 전시되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GB커미션)과 더불어 5월 정신을 되새겨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창 작가 '검은 기억, 검은 하늘'

전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062-601-4462. /김미은 기자 mekim@

공룡박물관에 코끼리가 나타났다

해남 공룡박물관 9월 3일까지 이형우전

코끼리, 원숭이, 얼룩말... 공룡박물관에 온갖 동물들이 나타났다.



‘바스코 다 가마에게서 들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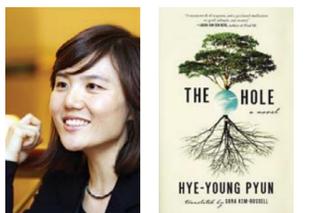
서양화가 이형우 작가가 오는 9월 3일까지 해남 공룡박물관에서 여름방학특집 전시회를 연다. ‘동물들의 이야기 나라로(Go to the animal story worl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채로운 동물 뿐 아니라, 인간, 역사, 신화 이야기까지 아우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들은 500호를 비롯해 대작 위주로 널따란 공룡박물관 갤러리에 걸려 안성맞춤이다. 이 작가는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공룡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임을 감안,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미난 작품들을 내걸었으며 어른 관객들에게도 작품 속 스토리를 따라가는 재미를 준다.

화폭엔 인간과 동물을 비롯해 역사 속 인물인 나폴레옹, 바스코 다 가마, 아인슈타인 등이 등장하며 임진왜란과 신화 속 오이디푸스, 스펡스도 만날 수 있다. ‘바스코 다 가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발견한 바스코 다 가마에게서 들은 동양의 이야기, 일본의 철기문화 등이 묘사돼 있다. 이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 졸업했으며 미국, 서울, 광주 등에서 1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061-530-5324. /김미은 기자 mekim@

편혜영 장편 ‘홀’ 美 문학상 ‘셜리 잭슨 상’

편혜영(사진) 작가의 장편 ‘홀’(The Hole)이 미국 문학상 ‘셜리 잭슨 상’ 장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문학번역원은 17일 번역출판 지원을 통해 미국에서 출간된 편 작가의 ‘홀’이 ‘셜리 잭슨 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셜리 잭슨은 서스펜스, 호러, 미스터리 장르의 문학작품으로 명성이 높은 20세기 미국 작가로 ‘고딕 호러 소설의 선구자’로 불린다. 그의 문학 세계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된 ‘셜리 잭슨 상’은 최근 1년간 출간된 심리 서스펜스, 호러, 다크 판타지 작품을 장편, 중편, 중단편, 단편, 단편집 등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수상작은 작가, 편집자, 비평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투표로 선정해 매년 7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SF 컨벤션인 리더콘(Readercon)에서 발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화순 출신 정운천 시인 지리산문학상 수상

올해 지리산문학상 수상자로 화순 출신 정운천(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발해로 가는 저녁’ 외 4편. 계간 시산맥과 지리산문학회는 올해 제13회 지리산문학상 수상자로 정운천 시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산문학상은 지난 한 해 발표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 및 시집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제다. 올해부터는 상금이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오태환·이경림·김추인 시인 등 심사위원들은 “그의 시적 모티프는 많은 부분



기억의 지평선 아득한 지점에 묻어두었던 것을 새삼 발굴해 드러내는 형식에 의존한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경남 함양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수상자와 수상소감, 심사평 등은 시산맥 가을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험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험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